

| 본부 |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47 동서대학교 국제협력관 8F TEL 051-320-1900~1 FAX 051-320-1902 E-MAIL japancenter@dongseo.ac.kr  
 |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신문로1가) 광화문오피시아 2331호 TEL 02-723-2270~1 FAX 02-723-2272

## ‘일본의 우경화 · 중국의 패권화 속 한국의 전략적 선택은?’

- 동서대 일본연구센터 · 중국 사회과학원 · 일본 게이오대학 공동주최 제6회 한중일 국제심포지움 -  
 5월 23일~24일 북경 중국 사회과학원 · 한중일관계의 현황과 동아시아 협력의 장래

동서대 일본연구센터 · 중국 사회과학원 아태 · 글로벌전략연구원 · 일본 게이오대학 현대한국연구센터가 공동주최한 ‘제6회 한중일 국제심포지움 2014’가 5월 23, 24일 북경의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열렸다. 이 심포지움은 2008년 동서대 주최로 부산에서 처음 열린 이래 3국 공동주최로 확대되어 매년 한중일에서 번갈아 개최되고 있다. 이번 심포지움에도 3국의 외교 · 안보 · 국제정치 전공 연구자 및 외교관 경력자와 언론인들이 자리를 같이하여 최근 긴장과 대립이 계속되어 있는 동북아 정세에 대한 주제 발표 · 토론을 전개하면서 해법을 모색하였다.



장제국 총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이 심포지움의 특징은 한중일 동북아 3국간의 관계를 매년 분석해 보고 정책제언을 하는 몇 안 되는 모임이라고 밝히고 요즘 동북아 정세가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 급속히 우경화 되어 가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고, 중국은 동북아에서의 패권을 염두에 두고 상당히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북한이라는 예측을 불허하는 존재를 머리에 이고 있다”고 지적. 장총장은 이 심포지움에서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해서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과연 장애물은 무엇이고 또 서로 간에 어떠한 오해가 있으며 이를 어떻게 대승적으로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모아 봤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공로명 동서대 석좌교수는 추사에서 “중국과 일본은 다오위다오(釣魚島), 일본에서는 센카쿠(尖閣)라고 하는 영토 문제로, 한국과 일본은 ‘침략에는 일정한 정의(定義)가 없다’는 역사인식에서 오는 갈등으로 3국간의 정상회담마저 가질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서로 동북아의 장래를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 하루속히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언급.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학 명예교수는 추사에서 “지금 같은 국제관계 재편의

시기에 이미 신뢰를 확립하고 있는 한중일의 석학들이 함께 모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매우 감사한 재산”이라고 말하고 ‘공통의 이해’와 ‘공통의 이익’을 추구할 경우에도 우리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재산을 활용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면에 주제 발표내용 요약>

토론에서 장제국 총장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행사 추진 등 아베정권의 ‘강한 일본’을 추구하는 움직임을 지적하고, 그 같은 길에 나서려면 먼저 주변국과의 과거사 청산이나 역사인식의 공유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아베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주변국을 자극하는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지적, 왜 스스로를 자승자박하는 정책노선을 무리하게 강행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 연세대의 한석희 교수도 과거의 평화주의를 지향하던 일본정치가들의 모습이 최근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

일본측에서 게이오대학 니시노 준야 교수는 최근의 일본 정책담당자들이 ‘코리아 피로감’에서 ‘한국 무시’로 흐르고 있으며 아베 수상의 야스쿠니 참배 등이 그 한 예라고 주장. 와카미야 요시부미 동서대 석좌교수도 정치권의 세대교체로 인하여 과거의 전쟁이나 식민지 지배를 체험했던 ‘자제하는 정치인’보다 ‘속죄감이 없는’ 전후세대들이 진출하면서 한국 · 중국의 성장 · 발전 등에 대해 오히려 피해의식을 느끼고 반발하고 있다고 설명. 오코노기 교수는 최근의 일본정치가 미일 동맹 강화에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한중관계의 급진전을 초래한 일본외교는 ‘실패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종합 토론 마지막에 공로명 전 장관은 “위안부 문제 등 한일갈등은 ‘지도자의 정치적 결단’으로 풀어야 된다”고 주장. 사회를 맡은 장총장은 “한중일 갈등은 근본적으로 만나서 얘기하지 않으면 해법을 찾을 수 없다”면서 3국 정상회담의 재개를 촉구했다.

### 제6회 한중일 국제심포지움 참가자 명단

한국측	중국측	일본측
공로명 (전 외무장관 · 동서대 석좌교수)	한평 (중국 사회과학원 아태 · 글로벌전략연구원 부원장)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명예교수)
장제국 (동서대 총장)	파오젠이 (중국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중심 주임)	와카미야 요시부미 (동서대 석좌교수)
정구중 (동서대 석좌교수 · 일본연구센터 소장)	가오홍 (중국 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부소장)	고지마 카츠크 (게이오대 준교수)
조세영 (동서대 특임교수)	리용춘 (중국 사회과학원 아태 · 글로벌전략연구원 연구원)	가모 도모키 (게이오대 준교수)
이종국 (동북아역사재단연구위원 · 동국대 겸임교수)	중페이링 (중국 사회과학원 아태 · 글로벌전략연구원 대국관계실 실장)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준교수)
한석희 (연세대 교수 · 중국연구소 소장)	리청르 (중국 사회과학원 아태 · 글로벌전략연구원 대국관계실 연구원)	이소자키 아츠히토 (게이오대 전임강사)

## ‘북한의 국제협력과 중국의 역할’

박건일(중국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중심 주임)

90년대 초 냉전 종식으로 북한의 주요 대외 경제 협력체인 소련, 중국, 동유럽 등 사회주의 국가에 거대한 변화가 찾아왔다. 이는 북한의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 있어도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여파를 가져왔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북한 경제는 하락세, 침체기, 완만한 회복 등의 과정을 거쳐 지금의 빠른 성장기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북한의 중공업 시스템은 소련과 동유럽 국가로부터 건설 원조를 받은 것이지만 이러한 국가들은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 이미 북한을 도와 중공업 체계의 기술 개조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주기적으로 바뀌는 한국정부의 대북 정책은 변화무쌍해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이라는 미래지향적 전략 조치를 취하기 어렵고, 일본은 협력을 원해 안달이나, 단기간에 미국의 견제를 벗어나기 어렵다. 때문에 미국이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전까지 중국은 계속 북한의 대외경제무역 협력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 ‘한중관계와 동아시아의 지역협력’

한석희(연세대 교수 · 중국연구소 소장)

한국의 국력신장과 함께 중국의 부상이 가시화되고 동시에 미국의 침체가 장기간화되면서 한국은 미국 일변도의 대외전략에서 벗어나 다각적인 외교협력을 시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이러한 국가간의 조화로운 균형발전전략을 ‘헤징’(hedging)전략이라고 일컫고 있으며, 특히 향후 한국외교는 이 헤징전략을 중심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우호적이고 긴밀한 한중관계의 수립은 언제나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한일관계가 갈등국면을 지속하는 현 상황에서 한중이 일본을 상대로 과도한 밀착관계를 과시한다는 것은 곧 한일관계의 장기적 파국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박근혜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대책은 중일 사이의 헤징전략이다. 즉 박근혜정부는 우선 중국과의 원만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한일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 ‘한일관계의 현황과 도전’: 한국의 입장에서

이종국(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한미일 3국이 역사문제로 한일 양국이 서로를 피하자 미국이 중간에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여 서로의 관계를 유지시키는 타의에 의한 대화 형식이 계속되고 있다. 동아시아는 냉전종식과 함께 자국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한중일 3국은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를 수립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근대 이후 일본의 팽창적인 민족주의 전개로 희생된 한국과 중국은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는 동아시아 공동체 수립과 지역주의 형성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전후 60년이 지났지만 한중일 3국 사이에는 역사인식, 역사교과서, 야스쿠니 참배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심각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를 둘러싼 갈등은 각국의 국내정치에 영향을 미쳐 역사관련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동북아시아 3국사이의 외교관계를 마비시켰다. 새삼스럽긴 하지만 새롭게 등장한 정치지도자들에게 이러한 갈등관계를 넘어 협력구조를 만들어 주기를 기대해 본다.

## ‘일한관계의 현황과 과제’: 일본의 입장에서

니시노 준야(일본 게이오대 준교수)

한일관계는 과거 50년의 발전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 파트너십’으로 나아가는 과도기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내년 2015년을 새로운 전략 파트너십의 출발로 삼기 위해 내년까지 남겨진 시간을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한일 지도자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불가결하다. 현재 상황에서 위안부문제를 비롯하여 한일 간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론의 지원에 앞서 쌍방의 ‘정치 결단’이 필요하다. 위안부문제에서 우선 일본 측이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 박 대통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국내정치적 환경에 있는 아베 수상 쪽에서 관계개선을 향해 크게 한 발을 내디뎌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엿보인다. 그러나 한 쪽의 성의 있는 조치를 기대하기에는 현재 한일관계가 너무 악화되어 버렸다. 한일 쌍방이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여러 현안에 ‘공동으로’ 대처해 간다는 강한 정치적 의사와 각오를 보여주어야 한다.

## ‘중일관계의 현황과 도전’: 중국의 입장에서

가오홍(중국 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부소장)

저우언라이(周恩來) 중국 총리가 과거에 아주 정치적인 지혜가 담겨 있는 아이디어를 제출한 바 있다. 과거의 불행한 역사에 대해 일본인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중국 사람들은 계속해서 옛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늘날 현실을 보면 일본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역사의 진상을 덮어 감추려 하고 있다. 심지어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있다. 극소수의 정치가들이지만 난징 대학살은 날조이다, 위안부는 없던 일이다, 한국과 중국의 영토를 강점한 것은 아시아를 해방하기 위한 성전이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중국 인민들은 이같은 주장을 언론의 보도를 통해 보면서 과거 일본 정부가 23차례에 걸쳐서 해왔던 사과나 반성이 진실되지 못하고 허위적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지금은 새로운 시대이다. 국제법은 전쟁에 의해 영토를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상호 간의 경제협력, 경제의 존 등의 전제를 간과할 수 없다. 중국에 있는 일본 기업이 현재 3만개에 달하고 중국에 창출한 고용은 천 만 명에 달한다. 책임 있는 학자라면 이러한 숫자와 국가 관계를 보고 양국의 미래를 생각함에 있어서 양국 관계가 하루빨리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 양국 국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길로 나아가기를 희망할 것이다.

## ‘중일관계의 현황과 도전’: 일본의 입장에서

가모 도모키(일본 게이오대 준교수)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동아시아 지역의 ‘힘(power)’의 분포에 변화를 가져왔고 이 지역질서에는 커다란 변화가 생기고 있다. 중일관계 또한 이 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중국이 통상 시스템의 견인자로 부상하고 나아가서 중국은 안전보장 시스템의 견인자로서의 역할을 맡기를 바라고 있다. 기존의 안전보장 시스템의 견인자인 미국과, 새롭게 견인자로서의 역할을 맡고 싶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중국 사이의 상호관계가 향후 동아시아 지역질서를 형성해 가게 된다. 일본이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계속해서 향유하기 위해서는 ①미일동맹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②일본이 긴급사태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해 가는 것(집단지위권을 둘러싼 논의), 그리고 중국(물론 한국도 포함한다)과의 신뢰관계를 되찾고 관계 개선을 피하여 동아시아 지역에 우발적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만에 하나 발생한 경우에는 위기를 고조시키지 않기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해 가는 것에 있다.

## 일본지역연구의 위기와 일본경제 연구



박성빈  
(아주대학교 교수)

최근 한국 대학에서는 일본어, 일본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의 일본관련 과목의 수강생이 감소하였으며, 국내 일본관련 학과의 인기도 이전에 비해서 하락하였다. 사회적으로 일본에 대한 관심자체가 이전에 비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 또한 일본관련연구를 하고자 하는 젊은 연구자들의 숫자도 감소하고 있다. 현재 일본지역연구는 위기적 상황에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지역연구 등의 해외지역연구는 해당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특성을 모색하는 학문으로서 학제적인 연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경제학, 정치학 등의 특정분과학문(discipline)에 기초하는 연구자들은 해외지역연구에 대해 특정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의 지역정보를 기술하는 스토리 텔링(story telling)에 불과하며 그 분석에 있어서 이론적 보편성이 약하다는 비판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학문적 탐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론적 보편성을 추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해당 각국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해외지역연구는 단순히 해당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의 특수성을 설명함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화의 진전이라는 상황 하에서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이해하고, 특히 바람직한 경제제도의 방향성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시장경쟁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경제의 글로벌화라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한국, 일본 등과 같은 개별 각국 경제제도의 특수성은 점차 저하하여 한국, 일본 등의 경제시스템은 글로벌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영미형 경제시스템으로 수렴되고 있다(또는 영미형으로 수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필자는 일본의 경제제도를 연구해온 지역연구자로서 일본의 경제시스템이 향후에 영미형 경제시스템으로 수렴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단 그렇다고 해서 필자가 기존의 호송선단방식과 같은 구 일본형 경제시스템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또는 유지되어야만 한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최근 한국 내에서 경제제도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미국, 유럽 등의 경제제도 등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 일본 경제제도에서 대한 관심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최근 대학원생의 연구테마를 보면, 무언가 시대적 흐름을 느낄 때가 많다. 아마도 일본지역연구의 위기라는 현상자체는 사회적으로 일본에 대한 관심의 저하를 반영하고 있을 것이다. 학문이란 현실적 필요성에 부응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보다 관심이 많은 문제에 대해서 후속세대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는 연구 분야는 향후에 실제로 연구가 필요한 분야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1980년대에는 일본경제모델의 강점을 강조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면 1990년대 이후에는 그 한계에 주목하는 연구가 증가하였으며, 2000년도 이후에는 일본 고용문제에 대한 연구가 급증하기도 하였다. 일본경제의 상대적 위상이 저하함에 따라서 일본경제연구의 필요성이 저하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여전히 일본경제연구는 학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그 필요성이 높다. 향후에 보다 많은 학문후속세대들이 일본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보다 신선하고 창의적인 연구를 해줄 것을 기대해본다.

# 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원장 미수(米壽) 기념 특별강연회



일본에서 약50년간 한일관계를 연구하면서 한일관계의 근·현대 사료발굴에도 기여해온 국제한국연구원의 최서면 원장 미수 기념 특별강연회가 4월14일 오후 서울 광화문 S타워 다이아몬드홀에서 한일포럼, 동서대 일본연구센터 공동주최로 열렸다. ‘나의 한일관계 연구 50년을 회고하며’를 주제로 한 이 강연회에는 김수환 전 국회의장, 이승윤 전 부총리, 김우식 전 부총리, 윤병세 외교부 장관, 공로명, 유명환, 김성환 전 외무장관, 이세기 전 국토통일원 장관, 김우전 전 광복회장 등이 참석. 일본인 참석자로는 미치가미 히사시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사사야마 타쿠야 공사,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명예교수, 와키미야 요시부미 전 아사히신문 주필, 히라타 아츠시 류코쿠대 교수 등 양국 학계·관계인사와 역대 주일한국대사, 주한일본특파원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 **최서면 원장 강연 요지** :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때 아베 신조 총리가 올 줄 알았는데 아소 다로 부총리가 온 것을 보고 앞으로의 한일관계가 걱정되었다.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박정희 대통령 취임식에 가려 할 때 독재 반대 데모로 방한하기를 부담스러워했는데 내가 이럴 때일수록 방한하게 되면 한일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할 수 있다고 방한을 적극적으로 권유한 적이 있다. 한국정부가 7·4 남북공동성명을 일본에 사전에 알려주지 않아 한일관계가 악화됐을 때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박정희 대통령 철학을 박정희 이상으로 설명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면 된다고 조언을 함. 결국 한국 사정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일본어가 능통한 최규하 특사가 파견되어 일본에서의 파동을 잠재웠다.

1969년 도쿄한국연구원을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한국학 연구

를 시작했다. 신원보증인인 다나카 코타로(田中耕太郎)의 소개로 일본 아세아대학교에서 교편을 잡아 한국학 강의를 하였고 한국학을 연구하는 일본인들과 일본학을 배우기 위한 기초 학문으로 한국학을 공부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와서 그에 응답하기 위해 연구원을 설립하게 되었다. 일본 국회도서관에서 한국 관련 책을 읽다가 일본인들이 한국에 대해 넓고 깊게 연구한 걸 보고 놀랐다. 안중근 옥중 자서전, 독립운동자료, 야스쿠니 신사에 방치돼 있던 북관 대첩비 발굴 등은 좋은 업적이다.

안중근 의사가 1909년 10월 26일 의고 후 11월 3일에 외무성 정무국장이 한달동안 여순에 있으면서 안의사를 사형시키기 위해 담당검사, 고등법원장, 형무소관계자와 매일 회의를 하였다. 일반 일본인 죄수는 그 지역의 영사재판을 통해 2심은 나가사키로 송치되어 대법원으로 가는 것이 순서였지만, 여순의 경우 지방법원, 고등법원, 최고심이 없는 대신에 외무대신이 최고심으로 판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안의사를 사형시킬 수 있도록 일을 꾸미기 위해 정무국장이 파견되었다고 하는 사료는 외교사료관의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봉창 의사 의거 재판기록 자료는 일본 4대 대역죄로 아직도 공개가 되고 있지 않지만 우연히 이봉창 의사의 재판기록을 비공개로 볼 수 있었다. 김구 혼자 지시만으로도 의거를 하면 테러이겠지만 임시 정부 국무회의를 거쳐 행한 의거이기 때문에 정당한 국가적 행위로 의미가 있다.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한 일본의 초등학교 사회교과서가 오늘 공개되었는데 이는 일본한테 불행하고 일본사람을 위해 매우 불행한 일이다. 사실이 왜곡된 교과서로 역사를 배우는 일본학생의 미래가 걱정스럽다.





**우에야마 유리카(역사)**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박사과정  
ueyama.yurika@gmail.com

해방 후 어떻게 국사교육 공간을 창조해 온 것인가? 해방이후 제1차교육과정의 시행될 때까지의 한반도는 미군점령기, 한국전쟁을 경험해야 되었으며, 국가운영은 물론이고 문교정책도 임시방편적 것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국사교육 공간의 창조는 도외시되었던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사회적 욕구에 따르기 위해 대응책을 강구해 왔다.

해방 이후의 한반도에는 당연한 귀결로 식민지배가 새겨진 사회와 개인의 심신이 존재하고, 민족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수단으로 국어·국사교육에 치중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한반도의 분할통치,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분단의 고정화, 상태화라는 현실과 대치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적 과제와의 대치는 국사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 물음에 대답하는 단서로 국사교과서 서술 변천 및 교과서 집필자에 주목한다. 대한민국의 문교정책은 국가운영과 연동하면서 전개 발전하고 변화해 왔다. 즉 교과서서술의 변천 추적은 그 당시의 역사인식을 확인할 일조가 될 수 있다. 국가운영과 문교정책이 실질적 구조 변화의 여파를 국사교과서의 역사서술이라는 가시화된 대상, 집필자의 사관과 서술체계와 대조시키는 것으로 당시의 현실적 과제에 대한 국사교육적 입장이 어떻게 묘사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한승훈(종교·사상)**

서울대학교 대학원  
종교학전공 박사과정  
hans0hoon@gmail.com

미릭은 동아시아의 종교문화에서 대단히 인기 있는 신격이다. 기본적으로 미릭은 불교의 교의에서 석가모니에 이은 미래의 부처로 등장한다. 그러나 동아시아 각국에서 미릭은 불교적 맥락을 뛰어넘어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주는 신이 되기도 하고, 국가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수호신이 되는가 하면, 목시적·종말론적인 반체제운동이나 신종교운동에 등장하기도 하였다.

나의 발표는 이러한 미릭신앙의 다양한 형태를 체계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유형론을 마련하고, 유형 사이의 상호관계를 이해하려는 시도였다. 이에 대해서는 상생신앙, 하생신앙이라는 전통적인 범주로부터, 미야타 노보루의 민족학적 비교연구, 쟈 내티어(Jan Nattier)의 시공간적 유형론 등의 선례가 있다.

발표에서는 먼저 기존 유형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기복, 구도, 호국, 혁세라는 네 가지 종교적 욕구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미릭이라는 상징을 통해 상상된 '새로운 세계'에 대한 담론들을 이 모델에 따라 유형화하였다. 이와 같은 접근은 종교전통 내부의 언어나 민족적 차이에 바탕을 둔 비교작업에 비해 종교사상의 문화적 기반을 밝히는 데 유용하다고 본다.



**강정민(국제관계)**

게이오대학 대학원  
국제정치학전공 석사과정  
comekjm@hotmail.com

처음에 박정희 정권기의 한일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선행연구를 조사했지만, 한일회담과 전후보상문제, 종군위안부문제, 재일한국인·조선인문제, 독도·타케시마 문제를 다룬 것이 많았고, 한일문제의 거리 변화에 관한 논문은 볼 수 없었다. 어떤 문제는 어떤 것이 원인으로 어떻게 전환하고,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는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일관계의 전체적인 움직임은 읽어낼 수 없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박정희 정권기의 한일기본조약, 한국의 제2차·3차 경제개발계획, 김대중 납치사건, 문세광 사건을 다루어, 한일관계 변화를 분석하는 것으로, 거리에 있어서 '접근'과 '이반'이 되풀이되는 것을 밝혔다.

거리에서 접근과 이반을 결정하는 팩터에는, 미국의 압력, 한일 양국의 정치체제와 경제적이익, 한국에서의 학생을 비롯해, 시민단체에 의한 교섭반대운동, 주권침해, 한일의 야당 및 북한의 반대 등인 것을 명확히 했다. 본고의 목적인 거리 변화를 결정하는 팩터를 찾고, 추출하는 것은 할 수 있었지만, 논문을 쓰면서 매우 중요한 '선행연구의 분석'을 철저하게 하지 못한 점, '외교문서'를 읽고 그것을 반영하는 것을 할 수 없었던 것은 후회가 남는다. 그리고, 한국인이면서 일본에서 논문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문헌을 많이 읽을 수 없었던 것은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 한국어와 영어 문헌을 조사하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일 것이다.



**마츠이 쿄코(문화·예술)**

고베대학대학원  
국제문화학연구과박사과정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일의 동작에 맞추어 다양한 노래를 불러왔다. 일본에서 노동요는 현재 '민속예술'로 일본 각지에서 보호 및 공연되고 있다. 이 예술은 노동요에 신체동작이 새롭게 추가됨으로써 재편성 된 것이 많지 않을까?

그리하여 필자는 민속예술 '하야시다'를 살펴보고, 그것이 어떻게 계승되었는가와 함께, 어떻게 퍼포먼스적 요소로서의 신체동작이 추가되고 역사적으로 계승되어왔는가에 대해 조사하였다.

'하야시다'란 모내기를 하면서 선창자와 모를 심는 사오토메(모내기 처녀)가 즉흥으로 다우에우타(모내기 노래)를 번갈아 부르는 예술의 총칭으로, 하나다우에(꽃 심기)로도 불린다.

기존의 하야시다 연구는 일반적으로 노동요에 의해서 '신체동작=노동 시 동작'이라는 생각되어 왔기 때문인지, 다우에우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신체동작은 크게 주목받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현재의 다우에바야시를 살펴보면, 연구자가 논에서 올라와(즉 모내기와는 달라져) 춤을 추며, 대형을 바꾼다. 반면, 모내기를 하면서 노래를 번갈아 가며 부르는 전통적인 연기도 병행·계승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는 이러한 기존의 쫓의 계승과 새로운 연기의 창출이라는 혼합된 실태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 두 가지의 하야시다 연기를 연구하는 것이 현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필자의 연구 의의는 현대에서 무형문화유산에도 등록되어 있는 하야시다에 대해 어떤 면이 '전통'의 특성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그 본위를 알아봄에 있다.

## 제44회 동서사랑방(4월 18일)

오코노기 마사오(일본 게이오대 명예교수)

현재 한일의 역사 마찰에 관해서는 가장 큰 특징은 지도자 레벨에서 신뢰감이 없다. 지도자 레벨의 증오심이 생긴 것이다. 처음 몇 개월 사이에 신뢰가 없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이념, 외교원칙, 신뢰프로세스라는 말에 상징되는 듯한 외교원칙에서 그녀는 외교를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아베 총리의 외교이념과 맞지 않는 것이다. 2015년에는 한일협정 체결 50주년, 8월 15일은 70년을 맞이한다. 역사문제는 14년 중에 어떻게든 해결하지 않은 채로 15년이 되면 어찌할 방도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한 2015년 문제가 다가가기 전에 대비해야 한다. 그러한 것을 의식해 시나리오를 생각하면 최초의 시나리오는 어떻게든 2014년 중에 수뇌 레벨의 관계를 회복해줄길 바라는 것이다. 이 역사 논쟁 중 핵심이 되는 것은 위안부 문제이다. 이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법적인 결착이라는 것을 한국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인도적인 처리나 사죄나 또는 보상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의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그러나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라는 논리에 관해서는 이는 아마 일본측에서는 양보할 수 없을 것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정경분리이다. 정치는 이걸로 뒀으니까 이는 다른 분야에 영향을 주지 않는 형태로 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예를들어 강제징용자 개인보상 문제가 제기되어 최고재판소에서 보상 판결이 나와 요구가 나오게 될 때에 정경분리가 정말로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나온다.

세 번째는 미국의 개입, 중재라는 것이다.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의 한미일 3국 수뇌회담은 그래도 미국이 뭔가 중재하고 싶었고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애초에 한일 국교정상화는 미국이 성립된 것이다. 그러나 중재의 한도를 넘으면 아마 한일 양국 내에서도 더 복잡하게 되어버리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본에서는 과도하게 개입하면 반미민족주의, 반미감이 대두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도 미국도 같은 것이 되어버린다. 이는 매우 민감한 사태이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2015년에 돌입해 가면서 쌍방에서 반일감정이나 혐한감정이 높아져 간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상으로 높아지면 제대로 대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 내의 원리주의적인 운동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애초에 한일조약 자체가 틀렸다는 논쟁이다. 한일조약체제라는 것, 체제 그 자체, 조약이나 청구권 협정, 그 외의 것이 무너지는 것은 전후의 한일관계 모두를 부수는 것이 되므로 그런 것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논의되는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요즘 한일 관계를 계속 리드하고 있었던 것은 경제적인 상호의존관계였다. 경쟁과 공존, 경쟁과 협력이라는 것이다. 경쟁하면서 협력하고, 협력하면서 경쟁하는, 그런 한일 관계의 본래의 모습이 어딘가에서 보인다. 2015년에 그것이 보여진다면, 한일관계는 다시 어떻게든 회복될 것으로 생각한다.

## 제45회 동서사랑방(5월 19일)

미치시타 나루시게 (일본 국립정책대학원 교수)

동아시아의 안전보장환경에 있어서는 크게 북한 문제와 중국이 일본의 안전보장에 있어 2가지 도전 과제이다. 북한의 핵개발과 핵미사일 개발, 특히 핵개발에 대해서는 최근 상당히 우려해야 할 사항이 발견되고 있다. 그 이유는 작년 2월에 실시된 제3회 핵실험에 사용된 핵무기가 상당히 소형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소형화 단계, 즉 무기화하기 위해서는 상식적으로 소형화를 중시한 실험을 하게되며 상당히 소형화 되었을 것이라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동아시아 안보환경은 또한 중국의 힘이 상당히 강력해 지고 있다는 점이다. SIPRI라는 스톡홀름안전보장싱크탱크의 2013년 자료를 보면 국방비가 가장 많은 15개국의 리스트로 1위가 미국, 2위는 중국, 3위는 러시아, 4위는 사우디아라비아, 5위는 프랑스, 6위가 영국, 7위가 독일, 일본은 8위인 상태이다. 중국은 상당한 군사력이 절대 1위로 올라갔다고 말할 수 있다.

일본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에 최대 전략 목표는 방어 능력을 높이거나 새로운 현재 전략환경에 적합한 방어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두번째 포인트는 미일동맹의 강화이다. 3번째 포인트는 지역에서 안전보장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이다. 파트너십의 상대가 우선 순위별로 한국, 호주, 동남아시아 국가, 그리고 인도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중요한 이유는 중국 세력의 증가를 고려한다면 아무리 미국과 일본이 힘을 합쳐 공격한다 해도 이길 수 없다. 한국과의 파트너십은 상당히 중요하며 한일관계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특히 안전보장면에서 봐야 한다는 사태이다.



가노우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안보정책과장)

작년에 국가안전보장회의라는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지원할 국가안전보장국이 올해 발족되었다. 최초 임무가 작년 말에 만든 국가안전보장전략이며 커다란 가이드를 기본으로 새로운 방위대강과 중기 방위력정비계획이 수립되었다.

지난 주 안보법제 간담회보고서가 정부에 제출되었다. 그에 대해 5월 15일에 아베 총리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차후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다. 안보법제간담회 보고서에 근거한 일부 본격적인 자위권에 대해서도 집단안전보장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정부의 해석과의 연장선상에서의 한정적인 형태로 해석, 집단적자위권 행사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다라는 점검이 있었다. 그레이존과 PKO 문제에서 현재의 헌법해석에서도 어떤 입법 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해 먼저 검토하여 추가적으로 충분히 일본이 안전확보를 하기 위해 헌법해석문제가 필요한지, 해석변경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는 정부 내의 검토, 여당과의 협의를 앞으로 진행해 나간다는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해 기자회견에서 언급하였다.

현시점에서의 구체적인 타임 스케줄과 결론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과 한국은 상당히 공통의 안전보장상의 위협과 우려에 대해 직면있으며 이는 북한의 문제가 가장 크다. 미국이라는 공통의 파트너, 한일 동맹, 한미 동맹, 미일 동맹이라는 형태로 일본과 한국에 있어 공통의 동맹 상대이라는 점에서 일본과 한국이 안전보장의 협력을 진행해 나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양국간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안전보장의 진행 협력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것, 즉 그 이유는 일본과 한국은 처해진 안전보장환경과, 미국이라는 파트너라는 환경을 고려한다면 양국간의 문제는 양국간 처리를 해나가야 하나 그와는 별도로 안전보장 협력은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제8회 동서대학교 일본어 스피치 콘테스트 개최

5월 26일(월) 민석도서관 6층 다목적 세미나실에서 '제8회 동서대학교 일본어 스피치 콘테스트'가 개최되었다. 대회장에는 일본어학과 학생을 중심으로 약 100명이 자리했다.

적성 찾기, 남자 복학생의 캠퍼스 라이프, 공상에 빠지기, 좋아하는 일에 열중하기, 일본 유학 체험담 등 6명의 연사는 다채로운 내용으로 스피치를 진행했으며, 외국어를 구사하는 학우의 모습에 많은 청중이 귀를 기울였다.

일본어 발음이나 목소리 크기는 물론 어휘력, 청중의 반응 등을 토대로 엄정한 심사가 이루어진 결과, 2013년 일본의 유행어를 접목해 '일본어를 공부하는 게 뭐가 나빠?!'를 테마로 일본어에 대한 생각을 힘있게 이야기한 일본어학과 3학년인 강준구 학생이 최우수상에 해당하는 총장상에 선정되었다. 강준구 학생은 올해 가을 개최되는 재부산일본국총영사관 주최 일본어변론대회에 동서대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또한 우수상(일본연구센터 소장상)에는 서형남 학생(테마: '당신은 지금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심사위원 특별상에는 김민성 학



생(테마: '적성 찾기 여행-나의 경우')이 뽑혔으며, 류재준 학생, 임현진 학생, 정여진 학생 3명은 장려상을 받았다.

스피치에 나선 6명은 이번 학기 초부터 준비를 해왔다. 특히 식품영양학과 전공인 김민성 학생, 시각 디자인학과와 정여진 학생은 일본어학과 소속이 아님에도 이 콘테스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실제 콘테스트에서는 일본어학과 소속인 다른 4

명에게 뒤지지 않는 일본어 실력을 발휘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국제교류기금의 모리타 마모루 일본어교육 어드바이저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며 각 연사들의 스피치에 대해 솔직한 감상평을 들려주었다(심사위원 코멘트는 아래를 참조할 것).

콘테스트가 종료된 후 연사 전원과 일본어 발음이나 표현을 지도한 일본어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 뒷풀이 자리가 마련되었다고, 간단한 식사를 함께 하며 연습하는 동안 있었던 에피소드를 풀어놓기도 하면서 그동안의 노력을 서로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 | 심사위원의 코멘트 |

#### 모리타 마모루 (국제교류기금 영남지역 일본어교육 어드바이저)

초여름 같은 상쾌한 날씨 속에서 올해도 어김없이 일본어 스피치 콘테스트가 동서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본선에는 예비심사를 통과한 6명이 출전해, 평소에 갈고닦은 일본어 학습의 성과를 발표했다. 이날을 위해 각자가 스피치 테마를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해 왔다는 것이 느껴지는 멋진 내용이었다. 일본어가 전공인 학생은 물론, 다른 분야가 전공인 학생도 같은 무대 위에 올라 당당하게 스피치를 하는 모습이 너무나 젊음이다워 호감이 느껴졌다. 외국어로 스피치를 할 경우 외웠던 문장을 정확하게 기억해내려고 하는 나머지 말에 감정이 충분히 실리지 않아 말이 빨라지거나, 또 너무 긴장해서 목소리가 작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스피치 콘테스트에 참가한 6명만큼은 그런 불안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이야기의 내용에 집중해 귀를 기울여 심사를 할 수 있었다. 스피치의 내용도 화자가 자신의 개성을 마음껏 발휘했다는 생각이 든다. 저마다가 안고 있는 불안이나 갈등을 현실 문제로서 인식을 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걸어가려 하는 마음이 잘 와 닿았다. 이렇게 마음을 울리는 스피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평소에 대학에서 끈기를 가지고 지도를 계속해 주시고 계신 일본어 교사와 학생 여러분의 노력의 성과일 것이라 생각한다.

#### 미즈시마 리에 (재부산일본국총영사관 전문조사원)

스피치 콘테스트에 참가하신 발표자 여러분, 그리고 지도해 주신 교수님 여러분의 노력과 열의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엔 처음으로 심사위원으로 참가하게 됐는데, 전체적으로 대단히 수준이 높은 스피치였습니다. 상상 이상으로 실력을 발휘해 주신 덕에 심사위원으로서 점수를 매기는데 많은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적성 찾기 여행-나의 경우'는 천천히 이야기를 해 주는 듯한 스피치가 인상적이었고,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내용이 잘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복학생들에게'는 흥미를 끄는 제목과 고독한 복학생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신선한 내용으로 이야기에 빠져 들었습니다. '공상의 등불'은 당당하고 임팩트 있는 화법이 대단히 인상에 남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는 표현력이나 발음, 음량 면에서 좋았습니다. '일본 유학을 통해 얻은 소중한 경험'은 내용을 이해하기 쉬웠고 유학 경험자가 풀어놓는 경험담은 청중에게도 대단히 흥미로운 내용이었습니다. '일본어를 공부하는 게 뭐가 나빠?!'는 일본어를 둘러싼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내용으로, 유행어를 함께 구사해 개성적인 스피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험을 살려 앞으로도 열심히 일본어를 공부해 국제인으로 비약해 주길 바랍니다.



## ‘CAMPUS Asia 프로그램’ 이동식 국제 공동 캠퍼스, 2회차 과정 시작

– 중간사업평가의 높은 평가에 힘입어, 상설화를 향한 본격적인 움직임으로 –

본교가 일본의 리츠메이칸대, 중국의 광둥외어외무대와 공동으로 운영 중인 한중일 3국 정부의 공동추진사업 ‘CAMPUS Asia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3국 30명의 학생이 한국, 중국, 일본의 캠퍼스를 10주씩 이동하며 공부하는 ‘이동식 국제 공동 캠퍼스’의 2회차 과정에 들어갔다. 현지에서의 언어습득과 문화이해를 중시한 이동 캠퍼스의 1회차 과정은 언어과목 70%, 전문과목 30%로 구성되어 참가 학생들은 상대국 2개국의 언어를 높은 수준으로 습득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이동 캠퍼스의 2회차 과정에서는 언어과목 40%, 전문과목 60%로 구성되어 이미 습득한 언어능력을 토대로 통역 없이 상대국의 전문과목을 수강해야 한다. 중국 학기를 마치고 일본 학기에 들어간 2회차 이동 캠퍼스에서는 세 대학의 교원이 공동으로 수업 계획을 개발하고 릴레이 형식으로 수업을 운영하는 ‘3대학 공동 개설 인문학 강의’, 중국 학기에는 한국과 일본의 교수가 각자의 언어로 원격수업을 하는 ‘원격 중국 연구 강의’(한국·일본 학기도 동일하게 상대국 2개국에서 이루어지는 ‘원격 일본·한국 연구 강의’ 수업이 있음) 등 특징적인 과목이 개설되었다.

또한 이동 캠퍼스의 1회차 과정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한일 양국에서는 4년 동안 진행된 시범사업의 중간사업평가가 이루어졌다(중국에서는 중간평가가 열리지 않았음). 한국 측에서는 5개 항목(교육 프로그램의 목적 및 성과, 학생지원체제,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습 성과, 질 관리 체제)에 걸쳐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4개 항목에서 최고 수준인 ‘대단히 뛰어남’을 받는 등, 대단히 높은 평가를 얻었다. 일본 측에서도 대학 간의 정보 공유와 협력, 프로그램의 질 보증, 대학의 지원체제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S·A·B·C·D 4단계 평가에서 10개 사업단 중 유일하게 S평가(활동 상태가 뛰어나며, 사업 목적 달성이 기대된다)를 받았다.

세 대학은 이 같은 높은 평가에 힘입어 시범사업이 종료된 후인 2016년 이후, 그 성과를 계승해 더욱 발전시키는 형태로 프로그램 상설화를 위한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7월 5일(토)에는 세 대학의 총장이 오사카에 모여 상설화를 향한 합의를 정식으로 교환할 예정이다. 동 프로그램이 상설화 된다면 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고등교육의 모델로서 많은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 ‘한중일 캠퍼스 아시아 국제 포럼’ 개최

– 아시아의 미래를 개척하는 인재 육성을 위해 –

7월 5일(토), 오사카 국제교류센터홀에서 한중일 캠퍼스 아시아 국제 포럼 ‘아시아의 미래를 개척하는 인재 육성을 위해’ (주최: 리츠메이칸대학, 동서대학교, 광둥외어외무대학(중국·광저우), 후원: 아시아신문사)가 개최되었다. 한중일 3국의 대학이 운영하는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은 아시아에 새로운 고등교육 모델을 제공할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범사업으로, 이번 포럼을 통해 고등교육 관계자뿐만 아니라 보다 폭넓은 층의 사람들에게 동 프로그램의 의의와 가능성을 인식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포럼은 3부로 구성되며, 먼저 1부에서는 세이카구인대학의 학장이며 도쿄대학 명예교수인 강상중 교수가 ‘은혜와 원한을 넘어서-한중일의 지역 연계와 젊은이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였다. 이어서 2부에서는 동 프로그램에 참가한 세 대학의 학생이 등장해 ‘지식과 대화로부터 태어난 상호이해-이동 캠퍼스에서

의 공동학습·공동생활을 통해-’란 테마로 각자의 학습·생활체험을 토대로 프레젠테이션을 하였다. 마지막 3부에는 세 대학의 학장(가오구치 기요후미 리츠메이칸대학 학장, 장제국 동서대학교 총장, 중위합 광둥외어외무대학 학장)의 패널 디스커션 ‘다문화 협동형 아시아 인재 육성을 향한 과제와 도전’이 이어졌다. 하코다 테츠야 아시아신문 논설위원이 사회를 맡으며 강상중 교수도 움직임에 참여해, 한중일 세 대학의 수장들이 동 프로그램을 통해 육성하고자 하는 인재상, 그를 위한 대학의 활동 등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아시아를 기점으로 세계에서 활약할 글로벌 인재의 육성이라는 과제와 그 전망은? 본 포럼 참가자들은 아시아를 무대로 한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의 최전선을 접해볼 수 있었을 것이다.

### 소장 동정 (3월~7월)

3/26	종합채널 MBN 아침의 뉴스 특집 출연, 최근의 한일관계를 진단
4/4	한일포럼(회장 유명환 전 외통부장관)과 동서대 일본연구센터 공동주최로 국제한 국연구원 최서면 원장의 미수 기념 특별강연회를 개최
4/24	서울대 일본연구센터 주최 ‘한일현안 긴급진단’ 토론회에서 지정토론
5/23~25	장제국 총장 주재로 북경의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열린 제6회 한중일 국제심포지움에 공로명 석좌교수 등과 함께 참석, 사회와 토론, 장총장 등 한국측 참가자 권영세 주중한국대사 예방
5/26	동서대 일본연구센터 주최로 제8회 일본어 콘테스트 개최, 시상
5/28	벡쇼 고로 주한일본대사 초청으로 대사관저에서 일본의 한국계 톱스타 마쓰자카 게이코 등 만요슈 한국공연단과 오찬간담회
6/23	벡쇼 고로 주한일본대사 초청, 한일관계 강연 및 토론 (제 46회 동서사랑방)
6/27~29	한일차세대학술포럼 제11회 국제학술회(일본 오이타현 벳푸시)

### 방문자 (3월~7월)

3/28	나가오 시게토시 주한일본대사관 정무참사관, 일본 외무성 안보정책과장의 동서사랑방 강연 협의
4/2	와카미야 요시미 전 아시아신문 주필·동서대 석좌교수
4/18	오코노기 마사오 일본 게이오대 명예교수
5/18	가노우 타케히로 일본 외무성 안보정책과장
	미치시타 나루시게 일본 국립정책대학원 교수,
7/23	무토 마사토시 전주한일본대사
7/24	이하라 준이치 일본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장
	오노 케이이치 북동아시아 과장

### 주요 일정 (7월~9월)

7/5	한중일 캠퍼스 아시아 국제 포럼(일본 오사카 국제교류센터)
8/7~9	제22회 한일포럼 전체회의(일본 후쿠오카)
9/12~18	제9회 부산-후쿠오카 포럼(부산 해운대 파크 하얏트 호텔)
9/22	CAMPUS Asia 2014년도 한국학기 개강

### 기증도서 (3월~5월)

3/25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리뷰』 제3권·제2호·통권 6호, 2013년
4/3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한일 관계의 여제와 내일을 묻다』, 최상용·신각수 저, 제이앤씨, 2014년
4/9	한일협력위원회 『한일협력』, 夏, 2014년
4/18	일본 도쿄대학 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연보 2013년』, 제48호, 2014년
4/18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코리아연구소 『코리아연구』, 제5호, 2014년 외 1권
5/19	일본 세이조대학 민속학연구소 『민속학연구소개요』, 제38집, 2014년 외 1권